

인터넷 홈페이지 <http://aglook.krei.re.kr>
'10. 1. 5(화) 발표

한파·폭설에 따른
채소류 수급 동향과 전망

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
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

농업관측정보센터

한파·폭설에 따른 채소류 수급 동향과 전망

I. 요약

- 한파로 산지 생육 상황 다소 악화되었으나 가격 상승은 일시적이며 배추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가격 폭등은 없을 전망이다.
 - 채소 주산지(경남 및 전남)의 적설량은 1~7cm로 전반적인 채소 품목의 폭설 피해는 크지 않은 상황임. 그러나 생육 지연 현상이 일부 품목에서 발생
 - 마늘, 양파 등 저장 품목은 저온 창고의 피해가 없고 고속도로의 제설 작업이 완료되어 입출고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.
 - 폭설 피해 영향 품목: 월동배추, 월동무, 대파, 쪽파

- 법정도매시장 입하는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전체입하량은 예년과 큰 차이 없을 듯
 - 노지 채소의 가락시장 입하 물량은 다소 감소했으나 예년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.
 - 그러나 도착 시간이 지연되면서 경매 절차가 이전과는 달리 2~3차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음.
 - 따라서 경매시간이 길어지면서 품질 격차가 발생하고 실시간 가격 등락 폭이 이전에 비해 큰 상황임.
 - 시설 작물은 하우스에 쌓인 눈을 제거하기 위해 본격적인 작물 출하작업이 지연되고 있음.
 - 도매시장 입하물량 감소했으나 수도권 소매차량의 시장 진입량도 적어지면서 가격 변동 크지 않은 편임.
 - 다만 1톤 미만의 소규모로 운행되는 근교 업체류(열무, 열갈이, 시금치, 아욱, 근대, 쪽갓 등)는 경기지역 폭설로 반입량이 크게 줄면서 가격 상승폭이 큰 편임.

II. 품목별 수급 동향과 전망

□ 배추

- 월동배추 주 출하지역인 해남, 진도 지역은 최근 기온이 영하 1℃ 내외, 적설량 2cm 미만으로 최근 폭설 및 한파로 인한 피해가 적었음. 작황은 생육기 기상호조로 작년보다 좋지만 12월 중순 이후 영하의 기온 일수가 잦아 평년보다 결구 상태가 좋지 않음. 또한 깨씨무늬병 발생율도 평년보다 증가하였음.
- 월동배추의 산지출하는 최근 영하의 기온 일수 증가로 노지에서 배추 해동이 지연되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. 하지만 2월 중순~3월 중순까지 출하되는 만생종 면적과 봄(하우스)배추 정식 면적이 작년보다 증가하여 현재와 같은 일시적인 물량공백은 없을 것으로 보임.
- 현재 배추 가격은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49%, 45% 높고 향후 1~2주간 현 시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2월 중순 이후로 출하량 증가로 가격 상승폭이 완화될 전망.

□ 무

- 제주 월동무 한파 피해로 2월 출하분의 생육 지연 현상 발생. 이미 생육 초기 결주율이 높았던데다 금번 한파 피해로 작황 상황은 좀 더 나빠질 전망.
- 생육지연에 따라 상대적으로 1~2월 출하량은 감소하는 반면 3월 이후 출하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 큼.
- 따라서 무 가격은 1~2월이 작년보다 상승폭이 큰 반면 3월 이후는 상승폭이 감소하거나 하락할 가능성도 있음.

□ 대파

- 겨울대파 주 출하지역은 신안, 영광, 진도지역이며, 신안, 영광 지역은 폭설로 넘어진 대파가 상당수를 차지함. 넘어진 대파는 3월 이후 출하가 가능하며, 중하품을 차지함. 진도, 부산 지역은 한파로 인해 출하작업이 곤란한 상황임.

- 신안에서의 산지 출하작업은 미리 작업한 물량이 있어서 출하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, 폭설로 인해 작업에는 다소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, 진도지역도 한파로 인한 산지 작업이 원활치 못할 것으로 판단됨.
- 현재 대과 가격은 평년 수준으로(작년보다 20% 이상 높지만 작년 가격이 크게 낮아 가격 비교에 무리가 있음) 안정적임. 향후 1~2주간 대과 가격은 현시세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이나 3월 이후에는 출하지연되었던 겨울대과와 현재 생육 중인 월동대과가 동시 출하되면서 시세가 크게 하락할 전망이다.

□ 쪽파

- 제주 지역은 눈이 오지 않았지만, 한파로 인해서 크지 못한 물량이 많아 전반적으로 생육이 늦은 상황임.
- 따라서 1일 작업량이 3박스에서 1박스로 감소한 상황이나 이는 일시적인 작업량 감소로 판단됨.
- 현재의 가격은 평년 수준이며 이도 기상에 따른 일시적 반입량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기온이 상승할 경우 가격은 오히려 평년보다 하락할 가능성도 있음.

□ 양배추

- 양배추는 영하 6℃ 이하 기온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어야 냉해 피해를 입으므로 출하 지역 피해는 없을 듯
- 주 출하 지역인 제주 서부 지역은 눈 피해 없어 출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전남 해남, 진도 지역은 노지에서 2~3일 냉기가 빠지기를 기다려 출하할 예정으로 단기간의 출하 지연 발생할 듯.
- 출하 지연으로 출하량이 다소 감소하지만, 현재 가격 수준이 낮으므로 1월 가격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할 듯. 만생종 재배 면적 감소로 2월 말~3월 가격은 1월보다 다소 상승할 전망.

□ 풋고추

- 주산지인 진주, 밀양의 적설량은 1mm 이하, 광주는 7cm로 약간의 한파만 발생, 전반적인 작황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임.

- 시설하우스 가운데 따라 출하지연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, 한파에 따른 도로 여건 악화로 일시적 출하량 감소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.
- 따라서 풋고추 가격은 전월과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당분간 작년과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.

□ 토마토

- 주 출하지역인 논산의 경우 난방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고 적설량 많지 않아 출하에 문제는 없을 전망
- 광주와 담양도 적설량이 7cm 내외로 직접적이 피해는 없으며, 시기적으로 흐린 날씨에 따라 수확량이 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피해 상황은 크지 않은 편임.
- 주 출하지의 기상악화로 작업량이 줄어 가락시장 반입량이 줄었지만, 추운 날씨로 인해 소비도 동시에 감소하면서 시세의 변동은 거의 미비한 수준임.

□ 딸기

- 논산과 담양 등의 시설 피해는 미미한 편이며 흐린 날씨로 인한 수확량 감소는 어느 정도 있으나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.
- 폭설과 한파로 인한 수확량 감소는 매년 농가들이 겪는 일이며 어려운 작업 환경으로 출하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추운 날씨로 인해 수요도 줄어들어 가격의 큰 등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.

□ 오이·호박

- 진주 동부, 구례지역은 일조량이 다소 부족하나 시기적인 현상이며 재배면적 증가로 봄철 이후 출하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 생산과 출하, 운송에는 지장이 없으나 소비가 부진한 상태임.
- 그러나 경북 상주 지역은 폭설에 따른 물류의 문제로 7개 작목반중 한 개 작목반만 출하하고 있어 산지 재고가 쌓인 상태임. 노면이 회복 되면 정상 출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.
- 시장유통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소비도 부진한 상태로 소비 수준 회복에는 2~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.